

# “광주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 광주FC '철벽수문장' 김경민, 33세에 대표팀 첫 태극마크 발탁

프로축구 광주FC '거미손' 김경민(33)이 생애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김경민은 지난 4일 대한축구협회가 발표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5-6차전 국가대표 명단에 포함됐다.

김경민은 뛰어난 반사신경, 1대1 방어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정확한 킥으로 공격 전개 시 빌드업과 역습 상황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양대 재학시절 연령별 대표팀과 2011 심천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발탁되며 주목을 받은 김경민은 2014년 신인 자유계약으로 제주Utd에서 프로 데뷔해 부산과 이랜드를 거쳐 지난 시즌 팀에 합류했다.

2022년 K리그2에서 34경기 28실점으로 리그 최소 실점과 팀 우승을 이끌었으며, 2023년 K리그1 승격 후 26경기 22실점으로 꾸준한 방어력을 보여주며 구단 역대 최고 성적에 이바지했다.

올 시즌에는 34경기에 출전하며 광주FC 부동의 수문장으로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단 광주FC 부동의 수문장 김경민 (광주FC 제공)

활약하며 매 경기 엄청난 선방을 보여주며 광주의 골문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

또한, 현재 K리그1 골키퍼 중 패스 성공 횟수 3위, 전방패스 성공 횟수 2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패스 지표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빌드업의 중추 역할까지 소

화하고 있다.

김경민은 “국가대표 발탁이 아직 알뜰하지만 굉장한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족들과 감동님께 감사하고 무엇보다 응원해 준 팬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광주FC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오겠다”고 국

가대표 발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김경민이 포함된 대한민국 국가대표는 오는 14일 오후 11시 쿠웨이트와 조별리그 5차전 원정 경기를 치른 뒤, 요르단으로 이동해 19일 오후 11시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6차전을 치른다. /박희중기자

## KIA, 통합우승 기념 상품 출시

### 우승 티셔츠 등 13종...어센틱 의류 30% 할인 등 프로모션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024 KBO 리그 통합 우승을 기념해 1차 우승 기념 상품 출시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1차 상품 출시에는 통합 우승 티셔츠·모자, V12 후디·모자, 기념구 2종, 와펜, 패넌트, 머플러, 아크릴 키링, 마그넷 등 총 13종이 포함됐다. (사진)

해당 상품은 구단 온라인 티스토리를 통해 6일부터 12일까지 예약판매를 실시한다.

또한, 어센틱 춘추점퍼, 패딩조끼, 모자 등 주요 어센틱 의류와 방한용품에 대한 30%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2차 상품 출시는 12월 초 예정이며



통합 우승 기념 유니폼·후디, 벽시계, 포도북 등 다양한 상품이 추가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구단 티스토어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홍철기자

### KIA, 오키나와 마무리캠프 '구슬땀'

## 미츠마타 수비 인스트럭터 초빙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지난 4일부터 시작한 오키나와 마무리캠프 훈련에 NPB 출신 미츠마타 타이키를 수비 인스트럭터로 초빙했다.

미츠마타 타이키는 2010년 오릭스에 입단해 주니치를 거쳐 올 시즌 야쿠르트에서 선수생활을 했다.

NPB 내에서 뛰어난 내야 수비로 인정 받은 선수로, 넓은 수비 범위와 안정감 있는 송구 능력을 갖췄다.



미츠마타 타이키 수비 인스트럭터 (NPB 홈페이지 제공)

KIA 구단은 “마무리캠프 기간 동안 기본기를 다지는 등 젊은 선수들의 수비 역량 향상을 위해 인스트럭터를 초빙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주홍철기자

## “프리카노 출전 최대한 노력 중”

### 장소연 AI페퍼스 감독 밝혀

장소연 AI페퍼스 감독은 새 외국인 선수 테일러 프리카노(29·미국)의 합류에 큰 기대를 걸었다.

장소연 감독은 5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리는 현대건설과 방문경기를 앞두고 프리카노의 출전에 관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팀 훈련은 함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프리카노는 성격이 밝아서 팀 조직력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훈련에서) 공격력 등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국인 선수가 빠진 AI페퍼스는 개막전 승리 후 3연패에 빠지며 1승 3패, 승점 4의 성적으로 5위까지 떨어졌다.

장소연 감독은 “전체적인 경기내용은 좋지만, 승부처에서 밀리고 있다”며 “외국인 선수가 빠져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프리카노가 합류하면 훨씬 좋은 경기력을 보일 것”이라며 “현재 선수들은 위기를 잘 견디고 있는데, 이는 선수단이 올라서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31일 진행된 '2024년 전남 GK클리닉'에 참가한 지도자들과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 전남축구협회, '2024 전남 GK클리닉' 성료

### 전 여자국가대표 GK코치 김범수 멘토 등 유명 코치 초빙 도내 초·중·고·대 골키퍼 25명에게 기본기 등 노하우 전수

전남축구협회가 전남 지역 초·중·고·대학부 골키퍼 선수들을 대상으로 역대 처음으로 '2024년 전남 GK클리닉'을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

전남도체육회와 전남축구협회는 5일 “지난달 30일~31일 보성군 별곡스포츠펠에서 도내 엘리트 골키퍼(GK)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명 국가대표 코치 및 선수 출신 멘토들이 GK클리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와 전남축구협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 멘토로는 김범수 전 여자축구 국가대표 GK 코치, 유현 전 수원FC GK, 박완선·주정우 전 광주FC GK 선수 등이 초빙됐다.

GK클리닉은 초·중·고·대학부 골키퍼 선수들을 연령별로 구분해 수준별 훈련으로 진행했으며 특히 참가 선수들은 다이빙, 펀칭, 킥을 비롯한 기본기 훈련과 골킥을 통해 활용 가능한 전술 빌드업, 이외에도 골키퍼 특성

에 맞는 몸 관리법 및 웨이트훈련 등 전반적인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선진 축구를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가졌다.

이형중 전남축구협회장 직무대행은 “각 학교 또는 클럽에서 전문적인 GK선수 훈련을 받을 수 없었던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GK클리닉을 개최하게 됐다”며 “특히, 선수를 비롯한 학부모들의 기대 이상의 호응과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5일 고척스카이돔에서 WBC 프리미어12에 출전하는 한국 야구 대표팀의 김도영이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첫 경기 대만戰 선발 결정했지만 비밀”

### 류중일 감독 “오늘 상무와 평가전, 투수·야수 최대한 기용”

류중일(61) 한국 야구대표팀 감독이 2024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첫 경기인 대만전에 등판할 선발 투수를 내정했다.

하지만, 아직은 공개하지 않을 생각이다.

대표팀이 프리미어12를 위한 훈련을 이어간 5일 고척스카이돔에서 만난 류 감독은 “대만전 선발을 누구로 쓸지, 최일언 투수코치와 상의해서 결정했다. 하지만 비밀”이라며 “선발 요원 5명에게 한 경기씩 맡길지, 한 명을 톱릴리프로 쓰고 한 투수를 두 번 내보낼지도 결정했다. 하지만, 이것도 비밀이

다. 너무 빨리 공개하면 재미없지 않나”라고 웃었다.

WBSC 랭킹 상위 12개국에 출전하는 국제대회인 프리미어12에서 한국은 B조에 속했다.

대만에서 13일 대만, 14일 쿠바, 15일 일본, 16일 도미니카공화국, 18일 호주와 차례대로 맞붙는다.

대표팀에 늦게 합류해 1일과 2일 쿠바와 평가전에는 등판하지 않은 임찬규는 6일 국군체육부대(상무)와 연습경기에서 실전 테스트를 치른다.

다른 투수들도 모두 마운드에 설 전망이다. /연합뉴스

류 감독은 “임찬규는 내일 상무전에서 1이닝을 던질 예정이다. 트레이닝 파트와 상의해봐야 하지만, 투수 모두 한 번씩은 던질 것”이라며 “상무전은 최대한 많은 선수를 뛰게 하고자, 선수를 쉬어서 치를 생각이다. 투수와 야수가 상무 선수들과 쉬어서 경기한다”고 전했다.

현재 훈련 중인 선수들은 34명이다. 6명은 프리미어12에 출전하지 못한다.

류 감독은 “투수 4명, 포수 포함 야수 2명이 엔트리에서 빠질 것”이라며 “운곽은 나왔다. 6일 상무전이 끝나고서, 속도로 돌아가 선수들에게 알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윤이나 박현경 박지영 (KLPGT 제공)

## “상금왕 가리자”

### 윤이나·박현경·박지영, KLPGA 시즌 최종전 격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4시즌 마지막 대회가 오는 8일 막을 올린다.

8일부터 강원도 춘천시 라비에벨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SK텔레콤·SK 쉐더스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은 올해 KLPGA 투어 대미를 장식하는 최종전이다. 이 대회를 통해 올해 상금왕과 대상 수상자 등 주요 개인 타이틀의 향방이 정해진다.

먼저 올해 상금과 대상 포인트, 평균 타수 등 주요 부문 1위를 달리는 윤이나는 “관왕 굳히기”에 나선다.

윤이나는 시즌 상금 11억9천944만원으로 1위에 올라 있다. 11억2천436만원으로 2위인 박현경과는 약 7천만원 차이이다.

시즌 최종전 우승 상금이 2억5천만원이고 준우승 상금은 9천600만원이라 이번 대회 결과에 따라 상금 1위가 바뀔 수 있다.

11억264만원으로 3위인 박지영과 9억5천220만원으로 5위인 김수지에게도 상금왕 가능성이 열려 있다.

위메이드 대상 포인트 부문은 윤이나가 555점으로 1위, 박현경이 508점으

로 2위고 박지영은 487점으로 3위다.

윤이나가 이번 대회에 포인트 추가를 하지 못하면, 박현경은 10위 안에 들어야 하고 박지영은 최소 2위를 해야 1위가 될 수 있다.

3관왕 도전에 나선 윤이나는 “올해 시즌을 시작하며 경기를 잘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팬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무사히 적응할 수 있었다”며 “올 한해가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고, 마지막 대회에서 타이틀 순위가 뒤집혀도 행복하게 시즌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현경은 “올해 데이터 측면에서 가장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어서 나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다”며 “타이틀을 의식하면 조금해지고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마지막 대회를 치르겠다”고 다짐했다.

시즌 3승의 박현경, 박지영, 이예원, 배소현과 2승의 노승희와 마다솜이 벌이는 다승왕 경쟁도 이번 대회에서 승자가 정해진다.

노승희나 마다솜이 우승하면 KLPGA 투어 사상 최초로 시즌 3승 선수가 5명 탄생한다. /연합뉴스